

주간 통일정세

2014-3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南 통일론은 흡수통일론... '연방제안' 논의해야"(10/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0일 북한의 연방제안 34주년을 앞두고 1일 발표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에서 "현 남조선 당국자는 유엔 무대에까지 찾아가 독일 통일과 역지로 결부시키면서 흡수통일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고 전함.
 - 담화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분열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통일방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집권유지를 위해 각양각색의 '통일론'을 들고나와 민족 내부분제인 통일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흡수통일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심으로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통일 운운하면서 해외에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선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문제에 관한 민족적 논의에도 응할 수 있는지 자기의 입장에서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국방위, 차대통령 국무회의 '대북 발언' 원색 비난(10/2, 조선중앙방송)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동족대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은 셈"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이어 "특히 박근혜는 우리 인권문제가 저들이 추구하는 통일의 주요 목표라고 공언하는 것으로 괴뢰당국이 말버릇처럼 췌치는(지껄이는) 통일이 결국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정치적 흥계에 도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유린"이라고 주장함.
 - 또한 박 대통령이 미국의 '북 인권소동'에 '합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 속에 북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독설은 우리에게 대한 흡수 통일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선포"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정신병자', '특등 대결광', '미친개' 등 극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함.

■ 北, '10·4선언' 7주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10/2, 조평통)

- 조평통은 10·4 선언 7주년을 이틀 앞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며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삼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함.
- 성명은 '드레스덴 선언',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공동선언을 거역하는 행위"라며 남측이 "북남선언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언급하며 "민족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동족대결을 청탁하는 역겨운 외국추종놀음을 그만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도 재차 촉구함.
-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온 겨레의 통일 지향에 도전해 끝끝내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 6·15 남·북·해외위 "2015년 통일의 전기 만들자"(10/3,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7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공동으로 발표한 '북남 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호소문에서 "오늘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군사적 대결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어 3개 단체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 개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북과 남의 당국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북남선언들을 당리당략의 농락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준비기구를 내오고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나가며 온

겨레가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각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南의 대화 촉구는 기만...빠라살포 중단이 우선"(9/29, 노동신문)
 - 29일 노동신문은 '빠라살포 망동은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패당은 빠라살포로 인한 험악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면서 요사스러운 대화 타령으로 우리를 계속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촉구가 "뿌리 깊은 대결적 기도를 가리기 위한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또한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남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라면서 "그것(대북전단 살포)은 사실상 총포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최악의 도발로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무조건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 "여자축구 결승전 남측 응원에 감동"(10/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통일의 메아리'라는 글에서 북한의 아시안게임 성과를 전하며 "이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경기 자체만이 아니라 경기장마다 남녘의 겨레들이 북측 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라고 전함.
 - 이어 조선신보는 "압권은 여자축구 결승전이였다"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선수 잘한다', '우리는 하나다', '힘내라 코리아', '조국통일' 등과 같은 현수막과 구호가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을 크게 고무해줬다고 밝히고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준 잇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강조함.

- 北, 대표단 파견 속 10·4선언 이행 촉구(1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사설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측 위원회의 호소문 등을 잇달아 싣고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실천을 강조함.
 - 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힘.

- 특히 최근 핵·인권 문제를 지적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떠나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사대 매국행위"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을 가르치는 시금석', '6·15의 명맥을 잇는데 통일 애국이 있다' 등의 기사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의 공동호소문도 게재함.

■ 조선신보 "北고위급 방남, 김정은 결단...공은 청와대로"(10/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인천의 열기로 민족 화해의 대통로를 열어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북남 당국 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돼왔으나 인천의 경기장에서는 체육을 통한 민족 화합이 이뤄졌다"며 "북의 최고수뇌부도 그 정신을 대담하게 실천해 경기대회 폐막식에 고위인사들을 파견했다"고 밝힘.
- 이어 "인천을 찾은 고위인사들은 서울까지 방문길을 연장해 청와대의 주인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큰 걸음을 내디딘 북측은 당연히 남측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평양에서 민족 화해의 사절들이 내려와 북남관계 개선의 단초가 만들어진 것만큼 이제 공은 서울의 청와대에 넘어갔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한 방문이 "북남관계 개선의 중요 계기를 마련한 최고영도자의 결단"이라며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룡해 비서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비서와는 달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파견된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2차 고위급접촉 합의(10/4, 연합뉴스)

-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4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임 대변인은 "북측은 '2차 회담이라고 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임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실 용의가 있었으나 북측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와 시간 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힘.
- 정부 고위 당국자는 "친서는 없었지만 (대남) 메시지를 들고 왔다"며 "오늘은 남북이 참 화기에애하게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회담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도 없었다"고 전함.
- 4일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 실장, 류 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 천해성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 8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외에 김영훈 체육상,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 체육성 부상 등 8명이 참석함.
- 북한 대표단은 회담 후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측 선수들을 격려하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이동,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명도 만났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대표단은 이어 폐막식을 관람한 뒤 정홍원 총리를 만나 인사를 하고 밤 10시25분께 12시간여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IL-62 항공기를 타고 귀환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정부 "대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9/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통일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개성공단 근로자 간식 '북한산 과자' 지급될까(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일 "개성에 있는 한 북한 기업소가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에 '봉동과자'라는 제품을 근로자 지급 간식용으로 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외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자체 결정 사항이라면서 난색을 표명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도총국 등 당국 차원의 압박을 가해온 것은 아니어서 개별 기업이 자율권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평양서 9년 만에 개천절 남북 공동기념행사(10/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와 단군민족 평화통일협의회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1일 보도함.
 - 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 김삼렬 단군민족평화통일협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 개천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전함.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개천절 행사 평양 방문(10/1, 연합뉴스)
 -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가 2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리는 개천절 경축행사와 단군제 봉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이번 방북에는 연구회 장두석 이사장, 이애주·임재택 교수 등 5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한 전역에 방송되며 방북단은 북측 대표단과 4차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뉴스는 전함.

-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 선수촌 세탁장에 화환 선물(10/2, 연합뉴스)
 -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북한 여자축구 선수 2명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 때 받은 꽃다발을 선수촌 세탁장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네며 그동안 세탁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통령의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北 주민들의 반향들을 소개하며 연일 대통령 실명 비난(9.29, 중앙방송)
- 韓-美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에 대해 "미국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범죄적 흥계의 산물"이라고 비난 지속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주장(9.30, 중앙통신·민주조선)
- 2014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단군릉 개건 20주년 계기), 10월 3일 단군릉 앞에서 김영대('민화협' 회장) 및 남측 대표단(김상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추 상임준비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3, 중앙방송·중앙통신)
- 대통령의 「국군의 날(10.1)」 기념사, '북핵·인권문제' 언급에 대해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결코 협상용·흥정물이 아니다'고 '핵포기 不可' 강조(10.3, 중앙통신·노동신문/특등 대결광의 본색은 갈데 없다)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38노스 "북한, 8월초 이동식 ICBM 엔진실험 실시"(10/1, 38노스)
 -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8월11일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지난 8월 초·중순에 자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엔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
 - 위트 연구원은 "이번 실험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1단계 엔진실험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이번 실험을 계기로 엔진실험이 모두 끝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하며 "만일 북한이 엔진실험을 모두 끝냈다면 북한이 앞으로 전면적 발사실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정확히 언제 엔진실험을 완료하고 발사실험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함.

- "북 서해 발사장 증축 완료...연내 로켓발사 가능성"(10/1, 38노스)
 -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지난 9월 4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2013년부터 시작된 서해 로켓 발사장의 주요 건설프로그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38노스는 또 "북한은 이제 또 다른 로켓 발사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올해 말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미 국무부, 북한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노 코멘트"(9/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나도는 데 대해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 美 '세계 전략 비난...'초대국 지위유지는 망상"(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유일초대국의 지위 유지는 헛된 망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군이 완성한 새로운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의 중점은 적군의 타격을 불의(불시)적이고 즉각적인 선제공격으로 마비시키는 데 있다"며 미국의 목적은 '유일 초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함.
 - 특히 "미군의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은 우리의 주되는 적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입증해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완성한 새 전략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든든히 갖추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로켓 발사를 비롯한 모든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함.

- 北 억류 미국인 파울 씨, 美 정부 석방 노력 촉구(10/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가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가진 외신 및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과 (우리의 석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마. 대중국

- 北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북중친선' 생략(10/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히고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귀국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 그러나 이번 축전에는 과거 국경절 축전에 들어 있던 표현이 다수 생략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바. 대일본

- 북한 송일호 "북한 내 일본인 조사 성실히 진행중"(9/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5시간 가량 선양 시내 성마오(盛貿) 호텔에서 북한 내 일본인 조사 문제를 주의제로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함.
 - 회담을 마친 후 송 대사는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북한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여러 분과에 망라된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은 일본 언론계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슨 납치(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자리가 아니었고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에 대한 상호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하라 국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공인납북자 12명'에서 막힌 북일협상...진퇴 기로(9/30,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 연합뉴스는 일본 신문들이 3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29일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때 북측이 애초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할 것이라고 했던 납치 일본인 등에 대한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제재의 추가해제를 고집하고 있어 양측의 골이 깊다고 지적하고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전했으며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북일 협의의 향방에 대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다. 경험한 적 없는 험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함.

- 북한, 납치 조사상황 확인차 평양 방문 일본에 요청(9/3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조사의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양에 와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북한으로부터 있었다고 30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보도함.
 - 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이런 제안에 관해 "재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조속히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北이 반 총장에게 전달한 건 '친서' 아닌 답전"(9/29, 미국의 소리)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북한에 축전을 보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을 통해 반 총장에게 답전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세계은행 "북한 정치적 상황, 작년에 더 불안정해져"(9/29, 연합뉴스)
 - 세계은행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 -0.53으로, 2012년의 -0.11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2013년 PV 지수는 세계은행의 이런 통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저치라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日-北 우호 여성대표단(단장 : 야마무라 치즈에), 9월 29일 귀국(9.29, 중앙통신)
-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배치를 강박했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김관진 NSC 실장과 회담時)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亞-太 지배 전략실행에 필요한 지역적 거점완비의 흥심'이라고 주장(9.30, 중앙통신/침략거점의 완비를 노린 행위)
- 現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논의는 "자기 식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권유린국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근본적 변화와 인권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비난(9.30,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은 미국의 농락물이 될 수 없다)
- '주한미군의 연이은 폭력범죄·패륜도덕행위' 규탄 및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 세계 일류급의 범죄왕국"이라고 비난(9.30,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IS(이슬람국가) 응징 선언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럽정세 및 韓美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 등을 "9월의 국제정세"라고 주장 및 '주한미군 철수와 反帝 투쟁' 강조(9.30, 중앙방송·노동신문/만천하에 드러난 전쟁광신자들의 정체)
- 몽골 국가대표단의 대표단, 9월 30일 귀국(9.3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리수용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상, 10월 1일 회담 진행(10.2, 중앙통신)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0월 2일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아나톨리 돌가체브 중앙위 1비서)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 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하였던 北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단장 : 김을호 부소장), 10월 2일 귀환(10.2,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10월 3일 귀국(10.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4)】 '미국이 핵문제·인권문제 등으로 우리(北)의 노선과 정책, 제도를 전면 부정하며 반공화국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무제한하게 취해 나갈 필요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10.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 구입계획 발표 관련 '미국이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겨 정세를 악화시키다가 새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검은 속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10.4, 중앙통신·노동신문/사태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 '매개 나라들이 자주적 대를 세워나가자면 경제를 자립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인적,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한다면 남남협조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다그칠 수 있다'고 주장(10.4, 중앙통신·노동신문/민족경제의 자립성 강화는 부흥번영의 담보)
-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센터 대표단, 10월 4일 귀국(10.4, 중앙통신·평양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김정은 '잠행' 중 '감사'·'선물' 전달은 계속(1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자 1면에 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선물을 보내시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휴양소의 관리운영과 휴양생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비품,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운전기재(차량)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한꺼번에 모두) 보냈다"고 밝힘.
- 한·미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없어"(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2일(현지시간) "김 제1위원장이 발목에 나타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변설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며, 김정은 통치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들은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에 부종과 물집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뉴스는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김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장기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김정남 파리서 목격...아들 한솔 만나러 온 듯(9/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김정남은 파리 시내의 르메르디앙 에투알 호텔에 묵고 있으며, 출장 온 한국 기업인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되었고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아들 김한솔을 만나러 프랑스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방러 일정 시작(9/30,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박 11일간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외무상과 수행원 등 일행 7명은 곧바로 공항 귀빈실에서 영접 나온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아주1국 부국장 등 러시아 인사들과 약 1시간 동안 환담했다고 전함.

- “北 탁구영웅 리분희, 교통사고로 중상”(10/1, 미국의소리)
 - 10월 18일 개막하는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9월 25일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 '두라' 대표인 이석희 목사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함.
 - VOA는 리 서기장이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리 서기장의 차에 타고 있던 장애인 학생들도 다쳐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 “美심장전문의, 김경희 치료차 방북”…위독설 제기(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지난달 28일께 미국의 심장 전문의가 김경희 전 비서를 치료하러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심장 전문의는 재미 교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북한에 머물며 김 전 비서를 치료 중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은 전용기에 경호원까지…北대표단 '위상 과시'(10/4,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조선중앙TV)
 -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차 4일 남측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이 자체 경호원을 대동하고 '김정은 전용기'를 이용하는 등 이전 북측 사절단과 달리 '최고 실세'로서의 위상을 과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황병서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최룡해·김양건에 앞서 이동해 대표단을 이끌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보였던 최룡해·김양건과 달리 경호원에 둘러싸여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해 대표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양건 비서가 오찬장에서 "총정치국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서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한 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인사에 화답한 것도 황병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북한은 오전 9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 김양건 동지가 동행했다"고 방남 사실을 공식 발표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3시 보도에서 대표단이 "정부비행대 비행기로 인천을 향해 평양 비행장을 출발했다"고 전하며 이 전용기가 '정부비행대' 소속이라는 점을 밝힘.

다. 공식 행사

- 北, 금강산서 김정일 시찰 기념행사…관광재개 '손짓'(10/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일 위원장의 금강산지구 현지지도 14주년 기념행사가 9월 30일 금강산 현지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이번 기념행사에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참석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친필비 앞에서 기념집회도 열렸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유엔총회 제69차 회의 참가 리수용(외무상), 유엔사무총장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각각 담화(9.29, 중앙통신)
- 김영남, 9월 29일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단장: 르 곤치그도르지 부의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道대항 군중체육대회-14' 개막식, 10월 1일 최룡해(黨 비서/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10.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 저작 발표('90.10.3) 관련 '김정은에 의해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함차게 떨치고 있다'며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은 필승불패' 주장(10.3, 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 나가는 혁명적당)
- 10·4선언 발표 7돌 즈음 좌담회와 사진전시회, 10월 3일 평양에서 진행(10.4,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中서 곡물수입 하반기부터 급증·6월작황 부진 탓(10/1, 연합뉴스)
 -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5만8천387t의 곡물을 수입, 월 1만t 정도의 곡물을 들여왔는데 하반기 들어 7월 1만9천559t, 8월 2만5천217t을 각각 수입하며 북한이 7, 8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상반기와 비교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북한이 이처럼 7월부터 곡물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은 6월 말에 수확한 이모작

작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가을 작황도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에 미리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관리 "러시아와 철도 개보수 현대화 협력 협의"(9/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한 내각 대외경제성의 오태봉 참사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철도 개건, 현대화와 관련한 협력문제를 러시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또한 오 참사는 "미국 등이 유엔 간판 밑에서 조선(북한)에 부당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러시아 투자단 이달 하순 방북...경제협력 문제 논의"(10/1, 인테르팍스 통신)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포함한 대표단이 이달 20~24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갈루슈카가 방북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측과 개성 공단 및 새로 조성될 청진 공단 등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와 러시아의 투자로 최근 준공한 북한 나진항 활용 사업에 한국 측이 참여해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리 외무상은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전함.

- "美 단체, 北에 수도시설 2곳 설치 위해 방북"(10/2, 미국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사리원 등 황해남북도 지역 북한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기 위해 지난달 말 방북했다가 9일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방송은 단체가 북한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한대당 설치비용이 2만5천달러(약

2천660만원)이며 방북한 실무진은 미국인을 포함한 서양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함.

■ 유진벨 재단, 결핵치료 지원차 이달 방북(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유진벨 재단의 존 로저스 미국지역담당 이사가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안에 결핵치료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확한 방북 날짜와 관련해 "북한 보건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로저스 이사는 "의사와 재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방문단이 약 3주간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러시아, 식량 5만 대북 지원…첫 선적분 남포항 도착(10/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러시아연방 정부가 조선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 5만 중 첫 배가 3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성의있는 지원은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표시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전함.

- 강원도 원산시에 잔디연구소 새로 건설 준공(9.30, 중앙방송)
- 北 클로렐라공업시험소 소장 연평혁, 천연유기탄소원에 의한 클로렐라 인공배양기술 개발 선전(10.1, 중앙통신)
- 함흥목재가공공장, 9월 인민경제계획 수행(10.2, 중앙방송)
-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신형 경량활차' 개발 및 현실 도입(건축물 내·외부 미장 및 도장 등에 이용) 선전(10.3,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김일성대도 '교육개혁'...외국어·영재교육 강화(10/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김일성대 개교 68주년을 맞아 이 대학의 교육 개선 노력을 소개하며 "대학에서는 지난 9월에 외국어 청취 및 회화 경연을 조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 속에서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고 있다"고 밝힘.
 - 또 김일성대가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경제학부에서는 시범적으로 8개 교실을 전자교실로 꾸리고 10여개의 강좌들에 컴퓨터망을 통해 교육과학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소개함.
 - 김일성대의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논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함.

- 北, 교사에 학생체벌 자제 주문...'손댈 권리 없다'(9/18, 교육신문; 10/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9월 18일자)은 '손이 가벼운 교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원에게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줄 권리만 있지 손을 댈 권리는 절대 없다"며 교사들에게 학생 체벌 자제를 주문했다고 전함.
 - 북한의 공식 매체가 이와 같은 글을 실은 것은 최근 의무교육과정인 중등일반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신문 "인천 아시안게임 성적, 김정은 영도의 결실"(1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1면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대회 성적이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친 영웅적 장거"이자 "우리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과 체육중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평가함.
 - 사설은 "체육을 국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체육

발전에 크나큰 힘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오늘과 같은 경이적인 우승의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최대 종합경기장에 "FIFA 기준 인공잔디 깎다"(10/5, 조국; 연합뉴스)
 - 5월1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인 조종문 국가건설위원회 처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0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이번에 축구경기장 바닥은 국제축구연맹이 인증한 재료로 만든 인공잔디를 깔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자 취업해도 이직 잦다"...장기근속 유도정책 필요(9/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서북부 지역 업체 32곳이 참가한 탈북주민 취업박람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그러나 박람회에서 실제 취업이 이뤄지는 비율이 낮고, 무엇보다 정작 취업한 사람도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고 자주 이직을 하고 있어 29일 박람회장에 나온 탈북주민과 업체 등의 관계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취업 알선 기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기근속을 유도할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서 오토바이 수요 증가...지방도시서 특히 인기"(9/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북한에서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생산업체에서 새 기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북한 금원무역총회사 산하의 금강오토바이회사 김명철 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 회사의 오토바이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평양과 청진, 원산, 남포, 해주, 함흥 등지에 꾸려진 판매소의 업무실적이 (이들) 실증해준다"고 밝힘.
 - 김 사장은 특히 지방도시 주민들이 승용차나 화물차보다 연료소비가 적고 운전하기 쉬운 오토바이를 선호한다며 "업무와 경영관리에 자동차를 쓰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여러모로 실리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함.

- 평양 능라유원지에 야외공연 무대...밤마다 예술공연 (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야외공연 무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풍치 수려한 능라인민유원지에 야외공연 무대가 생겨나 수도의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더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야외공연 무대에는 공연 활동과 관람에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능라도에 어둠이 깃들면 오색 찬연한 전광불빛에 의해 윤곽이 드러난 야외무대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통신은 전함.

- 백두산에 올해 첫 눈(10/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백두산 기상관측소 관측 결과 9월 29일 오후 6시 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백두산에 5cm의 첫눈이 내렸다"고 보도함.
 - 올해 첫눈은 평년보다 16일 늦어진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세계 노인의 날(10.1)' 즈음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 모든 연로자들이 연로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건강한 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고 주장(10.1, 평양방송/절세 위인의 사랑 속에 변함없이 실시되는 사회적 시책)
- 제11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9.29~10.1까지 평양에서 진행(10.1, 중앙통신)
- '세계 노인의 날(10.1)' 즈음 새 우표(개별우표 1종) 발행(10.3, 중앙통신)
- 北,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을'이 시작됐다고 보도(10.4, 중앙통신)
- 北, 만경대학학생소년공전 개건 보수 진행(10.4, 중앙방송)
- 양강도 대흥단군 농사동 농장, 감자 수확에 주력(10.5, 중앙방송)
- 제17차 인천 AG 참가 北 선수단, 10월 5일 평양 도착 및 '수십만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연도환영식 진행(10.5, 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선수들이 제17차 인천 AG에서 거둔 성적(금메달 11개, 종합순위 7위)은 '영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일심단결의 분출'이자 '당의 체육강국 건설과 체육중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강조(10.5, 중앙통신·노동신문/인민의 인사를 받으시라, 선군조선의 장한 체육인들이여)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북, 6자회담 재개 필요 공감...당사국 과격행보 자제해야 (10/1,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0월 1일(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극단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힘.
 - 라브로프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상황에 너무 많은 대결적 요소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회담 재개를 위해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국의 균형잡힌 태도와 극단적 행보 자제"라고 거듭 강조하였음.
 - 한편, 러시아는 남·북·러 3각협력 문제와 관련 "최근 준공한 북한 나진항이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이 사업은 남·북·러가 함께 논의 중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사업의 시범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하산-나진 구간 철도와 연결되는 나진항 활용 사업에 한국 측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38노스 "북한, 8월초 이동식 ICBM 엔진실험 실시" (10/2,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8월 초·중순에 자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엔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
 -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이번 실험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1단계 엔진실험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이번 실험을 계기로 엔진실험이 모두 끝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함.
 - 또한 위트 연구원은 "이번 엔진실험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최근(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

- "북 서해 발사장 증축 완료...연내 로켓발사 가능성" (10/2, 연합뉴스)
 -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증축 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38노스는 이날 지난달 4일 서해 로켓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2013년부터 시작된 서해 로켓 발사장의 주요 건설프로그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번 건설 프로그램이 현행 발사대를 증축하는 작업이고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의 경우에는 실제 가동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번에 발사할 로켓은 은하 3호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함.

- 6자회담 미·일 대표, 북핵문제 한미일 공조 확인 (10/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10월 2일 도쿄 외무성에서 회담을 가짐.
 - 교도통신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연대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미국과 일본이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함.
 - 또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진행상황을 파악하도록 당국자를 평양에 보내라고 북한이 일본에 제안한 것 등을 이하라 국장이 데이비스 특별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해짐.

- 북한 제네바대사 "북한 6자회담 재개 준비 돼 있어" (10/3, 연합뉴스)
 -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서방언론의 인터뷰에 이례적으로 응한 서 대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6자 회담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 시점에서 그러한 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일본, 한국 역시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미국인 문제에 대해 서 대사는 "그들이 북한에

불법으로 들어와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은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 북한과 협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이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함.

나. 미·북 관계

■ 美 6자수석 "北 비핵화 준수책임, 정면거부" (9/29,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9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베이징(北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비핵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것과는 갈수록 동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이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최근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돼 우리(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돼야 핵 문제는 풀릴 것"이라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려는 중국 측의 노력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이 문제의 근본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도 굳건하게 동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함.

■ 北 억류 미국인 파울 씨, 美 정부 석방 노력 촉구 (10/2,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가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함.
- 파울 씨는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가진 외신 및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한 데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과 (우리의 석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 북한이 파울 씨가 외신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은 억류 미국인 문제를 다시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北, 美 '세계 전략 비난...'초대국 지위유지는 망상" (10/2,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이 북한 등을 겨냥한 새로운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을 완성했다는 외신 기사를 인용하며 자위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는 지난달 15일 러시아 일간지를 인용해 미군이 최근 지구 상의 어떤 목표도 1시간 내에 신속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계 신속타격계획'을 완성했다며 이 전략 시스템은 중국을 제1 타격 목표로 하는 외에 북한, 이란, 국제테러단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유일초대국의 지위 유지는 헛된 망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군이 완성한 새로운 '전세계 신속타격계획' 전략의 중점은 적군의 타격을 불의(불시)적이고 즉각적인 선제공격으로 마비시키는 데 있다"며 미국의 목적은 '유일 초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함.

다. 중·북 관계

■ 北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북중친선' 생략 (10/1,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매년 중국 국경절에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는데, 올해도 축전을 보내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북중관계에 큰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이번 축전에는 과거와는 달리 '조중(북중)친선'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 빠져 양측의 냉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됨.

- 북·중, 개성·안주 중국군 묘역 개보수 착공 (10/1, 연합뉴스)
 - 중국 민정부, 외교부, 재정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6일 평양을 통해 방북해 29일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기념시설 개보수공정 착공식을 가짐.
 - 이번에 전면 개보수가 시작된 개성과 안주의 중국군 묘역에는 각각 1만 2천여 명, 1천100여 명의 중국군 유해가 묻혀 있다고 전해짐.
 - 중국 언론은 자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사망한 10만여 명의 중국군 유해 안장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 측도 중국군 전사자 기념시설 관리사업에 최근 몇 년간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했다고 소개함.

- 북한, 중국서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 참가 (10/1, 연합뉴스)
 - 중국신문사는 1일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에 서 개막한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참가해 자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과 국가 이미지를 홍보했다고 보도함.
 - SEK 베이징(北京) 대표처 관계자는 "SEK는 1957년 설립된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이자 대외무역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했으며 현재 SEK에 1천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이 8천 분(分) 분량에 달한다고 설명함.
 - 또한 중국신문사는 북한이 이번 박람회의 자국 전시관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현황 자료 이외에 '김일성 선집', '김정일 저작집', 우표, 배지 등도 진열해 국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함.

라. 일·북 관계

- 북한 송일호 "북한 내 일본인 조사 성실히 진행중" (9/30, 연합뉴스)
 - 수석대표인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 (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북한 내 일본인 조사 문제를 주의제로 회담을 재개함.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29일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한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여러 분과에 망라된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힘.

- 송 대사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측의 조사 결과 1차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조사 결과와 관련된 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통보)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특별조사위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상태를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은 자신들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언급함.

■ 북한, 납치 조사상황 확인차 평양 방문 일본에 요청 (9/30, 연합뉴스)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 때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조사의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양에 와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이런 제안에 관해 "재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마. 러·북 관계

■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방러 일정 시작 (10/1,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국 간 정치 대화 활성화와 경제·통상 관계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 리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니콜라이 페도로프 농업부 장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등 러시아 정부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외교 전문가들은 뉴욕 방문에 앞서 이란을 방문하고 뒤이어 러시아를 찾은 리 외무상의 일정에 대해 반미 공조를 다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하며, 또 중국을 거치지 않고 순방 일정을 짠 리 외무상의 행보가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러시아 투자단 이달 하순 방북…경제협력 문제 논의" (10/2,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은 1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달 20~24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갈루슈카는 방북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측과 개성 공단 및 새로 조성될 청진 공단 등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또 러시아의 투자로 최근 준공한 북한 나진항 활용 사업에 한국 측이 참여해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라 밝힘.
 - 갈루슈카는 러시아의 대북 투자 방안에 대해 북한 지하자원을 담보로 하는 방안, 소련 시절 북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 지구온난화 대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함.
- 러시아, 식량 5만 대북 지원…첫 선적분 남포항 도착 (10/3,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러시아연방 정부가 조선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 5만 중 첫 배가 3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힘.
 - 통신은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성의있는 지원은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표시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덧붙임.
 - 앞서 러시아는 지난 8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300만 달러(약 31억8천만원)를 기부하기도 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없어" (10/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발목 질환을 치료 중이며 통치체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2일(현지시간) "김 제1위원장이 발목에 나타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변설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며, 김정은 통치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이후 한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5일 김 제1위원장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저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라며 김 제1위원장의 건강이상을 인정하였음.

- "사드 한국배치 논의한적 없지만 잠재적 미사일위협 협력 기대" (10/4, 연합뉴스)
 -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아시아 리벨런싱(재균형)' 주제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한국 정부와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함.
 - 시어 차관보는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또 향후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번 방한 기간에 내가 집중할 이슈 가운데 하나"라면서 "현재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 美 국무·국방차관보 방한…北대표단 방남결과 협의 (10/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논의

- 차 6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양자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4일 남측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국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측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한중 해양환경기관, 해파리 공동연구 대응 (9/30, 연합뉴스)
 -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30일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IOCAS)와 해양환경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해파리는 기후변화, 서식처 증가, 포식자 감소 등에 따라 해마다 대량 발생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수욕객 쏙임 사고, 수산업 피해, 발전소 정지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데, 특히 큰 피해를 내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국과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어 해파리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수적임.
 - 광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중국의 해양 환경관리 상호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파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다. 한·일 관계

- '한국과 정상회담 서둘러야 한 달 새 7%p ↑ <일본 여론조사> (9/29,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한 달 사이에 7% 포인트 상승하며 50%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남.
 - 니혼게이지(닛케이)와 TV도쿄가 26~28일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집계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42%)보다 많았음.

- 이는 8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양상이 '역전'된 것으로 닛케이 등의 지난달 조사 때는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답(39%)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47%)'는 답이 많았음.

■ "아베 일본 총리 야스쿠니 또 참배할 것" <특별보좌> (10/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기 중에 전범 신사라는 비판을 받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또 참배할 것이라고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밝힘.
- 하기우다 특별보좌는 지난달 30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베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올해 11월에 예정된 중국 방문 이후에 참배할 것으로 전망함.
- 하기우다 특별보좌는 다만 "아베 총리가 참배가 국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정부, '아베 야스쿠니 또 참배 가능' 발언 비판 (10/2, 연합뉴스)

-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또 참배할 것이라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의 발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함.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특별보좌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을 비롯해 전범을 합사하고 있고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시설"이라면서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힘.
- 또 아베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자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 계승 입장을 수차 밝힌 바 있다"면서 "고노 담화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역사를 직시하고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조태용 "차대통령, 내년이 한일관계 발전 원년되길 원해" (10/2, 연합뉴스)
 -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예방하고 내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내년을 한일 관계 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함.
 - 조 차관은 "한일 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직시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는 두 개의 큰 수레바퀴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이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함.
 -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으며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일본 자민당 "군 위안부 보도·정부대응 검증하겠다" (10/5,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보도 일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집권 자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보임.
 - 5일 교도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을 검증하는 조직을 당내에 만들겠다는 뜻을 밝힘.
 - 이나다 정조회장은 아사히신문의 보도 취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특별위원회가 가동하면 결국 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아베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 망언 비난 (10/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아사히신문이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사의 과거기사 일부를 오보로 인정한데 대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의 입장에 대한) 대외 발신(홍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정부는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주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근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일본 정부 인사들의 입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함.
- 또한, "아무리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과거의 잘못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준엄한 비판만 초래할뿐"이라고 강조함.

라. 미·중 관계

- "시위 존중해야" vs "내정간섭 말라"…미중 '홍콩시위' 충돌 (10/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음.
 - 케리 장관은 회동에 앞서 "기본법에 따른 홍콩시민의 보편적인 참정권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 정부는 이번 문제에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왔다"고 전제하고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라며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또한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이 왕 부장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 중에 예고없이 합류하여 "미국은 홍콩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콩 당국과 시위대 간의 입장차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주미 중국대사 "중국 굴기, 남을 압도하려는 것 아냐" (10/3, 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주재 중국대사는 중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10.1)을 맞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의 발전 목표는 부강하고 민주적인 동시에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현대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언급함.
 - 또한 "중국의 굴기(굴<山+屈>起·우뚛 섬)는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그의 이런 주장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추이 대사는 또한 올해가 중미 수교 35주년이라는 점을 들어 "비록 지난 35년간 어려움을 겪어오긴 했지만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앞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며 "양국이 추구하는 이익의 결합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미·중 '북한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 공식 협의 (10/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방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문제를 논의했다고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문제를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중재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외교가는 전망함.
- 또한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마. 미·일 관계

■ "미·일, 방위지침개정 한국에 사전 설명" <요미우리> (10/3,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6일 또는 7일 방한,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정부 당국자에 설명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가 동석할 예정이라고 전함.
-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 속에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계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임.
- 미일 당국자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게 될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요청을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할 전망이다.

- "미일, 자위대 미군지원 지리적 제한 철폐" <아사히> (10/4, 연합뉴스)
 - 미일 양국정부는 연내 개정예정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서 자위대가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함.
 -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일본 유사사태, 주변사태(전쟁)의 세 분야에 대한 자위대의 미군 협력 내용을 각각 규정,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 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주변사태)에 한해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새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서는 이러한 세 분야 구별을 없애고 '글로벌한 미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 분야는 물론,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레이존 사태'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시 등에도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할 계획임.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언론 "미국이 홍콩 시위 배후 조종" (10/1, 연합뉴스)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방송인 제1채널과 로시야24 등은 30일(현지시간) 홍콩 시위 소식을 보도하며 미국이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제1채널은 "중국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 지도부가 미 국무부와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가 새로운 금융거래처를 찾으려고 아시아에 눈을 돌리자 미국이 불안정을 촉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함.
 - 로시야24는 "중국 언론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 지도부가 미국 정보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영향력을 잃은 영국도 이번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함.
- 미국, 러시아 개최 국제회의 불참...푸틴에 대한 비토 (10/3, 연합뉴스)
 - 10월 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오는 13~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함.

- 미국이 2003년 출범한 FCTC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보건부의 빌 홀 공보국장은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영토주권 침해 등을 감안해 당분간 러시아와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올해 FCTC 모스크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이번 FCTC 총회는 전자담배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 담배업계는 "업계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총회 불참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 중·일 관계

- 아베 "중·일 땔수없는 관계...정상회담 조기에 하자" (9/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임시국회 개원일인 29일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중국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고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함.
 - 아베 총리가 재직년 12월 취임 후 국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12월 취임후 여러 기회에 '중국 위협론'을 펴온 아베 총리가 이처럼 중국을 향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중국, 국경절 연휴 분쟁해역서 연일 주권 행보 (10/1, 연합뉴스)
 - 중국은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10월1일) 연휴를 맞아 연일 분쟁 해역에서 주권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 해경선 2350호, 2146호, 2113호 등은 3일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중국 국가해양국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함.
 -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주기적으로 해경선을 센카쿠

영해와 주변 해역에 진입시켜 순찰 활동을 하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밝힘.

- 왕이 "정상회담, 일본 실제행동이 관건" (10/2, 연합뉴스)
 - 홍콩 봉황 위성TV는 1일 왕 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이 현재 중·일 관계를 방해하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제 행동을 취하는지를 볼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개최의) 관건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그동안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나서 수차례 "중국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고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로 정상회담 개최에 강력한 희망을 보임.
 - 왕 부장의 발언으로 볼 때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이 말로만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서는 안 되며 성의 있는 태도로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과거사 역주행' 움직임을 중단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아. 중·러 관계

- 리커창, 9일부터 러시아 등 유럽 3개국 순방 (10/3,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와 독일, 이탈리아 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겸해 유럽을 방문할 예정임.
 - 중국 외교부는 3일 화춘잉(華春莹)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리 총리가 3국 총리의 초청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3개국 공식 방문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함.
 - 리 총리는 러시아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함께 양국 총리 간 제19차 정기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짐.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유엔총회서 달리진 행보, 유엔업무에 적극 참여 의사 표명(9/29, 연합뉴스)
 - 북한이 제69차 유엔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했음.
 -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밝혔음.
 - 리 외무상은 최근 유엔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기술 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엔의 2020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작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약속했음.

- 세계은행 "북 통치구조 세계최악"(9/2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은행이 30여 국제 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0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정부 효율성과 언론 자유 등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이 일년 전보다 낮아졌음.
 -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음.
 -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점수 2.5점에서 최저 점수 -2.5점 사이로 분류했는데,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2로 전년보다 나빠졌으며 꼴찌에서 세 번째로 평가되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을 보여줌.
 -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은 세계 최하점을 받았으며,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2.5점으로 조사 대상 215개국 중 최하위임.

- 데이비스 특별대표, 북한, 억류 미국인의 조속한 석방 촉구(10/1, 미국의 소리)
 - 방한중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 미국인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한 대화에 나올 준비가 빨리 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기회를 잃은 처사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미있는 대화를 위해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음.

- 北매체, 朴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실명 맹비난(10/1, 데일리NK)
 - 북한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극악한 특등대결광, 현대판 매국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음.
 - 매체는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한 것을 두고 "동족대결, 모해중상의 특등대결 광"이라며 "미국이 주동이 되어 온갖 불순적 대분자들이 쫓는 '북 인권 문제' 타령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인간의 진정한 삶의 권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반발함.
 - 또한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북인권사무소'가 아니라 '남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남한의 인권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MINGO, 북 지하교인 지원 사이트 운영(10/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비정부단체 '조수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지하교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관련 단체에 전달하는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단체는 북한 내 지하교인 현황을 파악해 어떤 지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보 수집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주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과 지하교인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 단체와 연결된 지원 단체에 북한 지하 교인의 지역별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조수아 프로젝트와 연결된 지원단체에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지하교인을 돕기

시작한 기독교구호선교회(Christian Aid Mission)가 있음.

-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 스티브 발켄버그 국장은 북한으로 지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수아 프로젝트와 협조해서 미국 본부에서 모금된 지원금을 중국 쪽 연결망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매달 100달러의 생활비와 100달러의 선교를 위한 활동비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단체의 지원을 받는 북한 지하교인의 규모와 지역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발켄버그 국장은 덧붙였음.

■ 북 억류 미국인 파울, 미 석방노력 재차 촉구(10/2,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파울 씨는 지난달 30일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미국의 AP통신과 조선신보 등 외신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건설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으며, 조만간 있을 선고재판과 관련해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음.
- 조선신보는 파울 씨가 지난 4월 청진을 여행하는 도중 성경책을 유포하는 위법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이미 해당 기관의 조사를 거쳐 그의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 조선신보는 이번 파울 씨 관련 취재는 그가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음.

■ 北, UN본부서 인권상황 설명회 개최키로(10/4, 뉴시스)

-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북한 유엔 대표부가 7일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각국에 설명하는 회의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회원국의 참가를 호소해 인권침해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널리 어필할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정리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고 한다"며 "북한이 유엔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밝혔음.
-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에서는 매년 11월께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있다"며 "올해는 유엔조사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엄격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 북한 인권

- 박근혜 대통령 "국제사회 관심, 북한 인권 개선 도움"(9/29, 미국의 소리)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안보 연구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28일 밝힘.
 -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COI 보고서로 인해 급한 마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세계에 알릴 정도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이어 탈북자와 핵, 인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통일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언급했음.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서울·송도 거론(9/29, 뉴시스)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장소로 서울과 인천 송도가 거론되고 있음.
 - 이 당국자는 "유엔이 선호하는 장소는 서울이다. 교통이 편하고 수시로 방문해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시설 면에서는 송도가 좋다"고 설명했다.
 - 그는 "2곳 다 선택이 가능한데 일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물이 가능할지를 봐야 한다"며 "서울에 설치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이 (유엔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與, 北인권법 조속 제정 촉구, 野에 협조 요청(10/1, 연합뉴스)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언급,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북한인권법을 우선으로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제는 더 북한 인권법 문제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가세했음.
-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하고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이 문제를 잘 거론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 캐나다서 북한 반인도 범죄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10/1, 미국의 소리)

-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캐나다 북한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가 지난 27일 북한 반인도 범죄 희생자 추모행사를 개최함.
-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지난 60~70년간 북한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반인도 범죄 희생자라는 사실이 유엔을 통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추모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힘.
-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복합문화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수용소에서 고통 받는 수 백만의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야 하며 자국민을 비양심적으로 대우하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음.
- 이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 속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맞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훈 한국 북한인권대사는 축사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맞서는 용기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벌였던 것과 같은 국제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국정원, 탈북자 조사시설 인권보호관 선임(10/1,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음.
- 인권보호관은 탈북자가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하고, 인권침해 대처요령

교육과 국정원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 등 역할을 담당함.

-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보호관만이 열어 볼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하고 무기명 설문조사와 일대일 법률상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음.

■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특별사업 추진 발표(10/2,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 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며, 이 기간에 특별사업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세부 과제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하고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기록·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등도 들어있음.
- 인권위는 특히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상설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음.

■ "인권 압박에 반응하는 북한...태도 변화 주목"(10/2, 미국의 소리)

- 워싱턴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결코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단계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돼 북한 정권에 단합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함.
-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역시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익한 현상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여 대북 관여전략을 적극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음.

3. 탈북자

- 미, 북한 포함한 동아시아 난민 내년 1만3천명 수용(10/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15 회계연도에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난민의 규모를 1만 3000명으로 배정했음.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부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음.
 -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탈북여성 정착위해 고군분투...55%가 단순노무·서비스업종사(10/1, 아시아경제)
 - 남북하나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탈북자 2355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1482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토대로 1일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9월호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탈북여성의 55.4%가 단순노무·서비스업 종사자로, 이마저도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38.5%나 됐으며, 평균임금은 127만원으로 탈북남성 174만원에 비해 47만원이나 적음.
 - 게다가 다수의 탈북여성이 학업, 육아, 건강 등 비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육아(24.8%), 학업(13.9%), 개인과 가족 사유(11.6%)의 순이었음.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비율은 39.6%로 한국 전체의 수급자 비율인 2.6%를 매우 웃돌았음.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탈북여성의 92.2%는 경제활동을 원하지 않으며, 임시직(주당 36시간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78.2%가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단은 밝혔다.
 - 생애주기별로 30대와 기혼 탈북여성은 아동양육 지원, 40대 여성은 자녀교육과 건강 지원, 50대 이상 여성은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달에 탈북여성에게 보육서비스와 부업과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교육 등을

올인원(All-in-One)으로 제공하는 가칭 '탈북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으로 열어 운영할 계획임.

- "탈북 브로커의 밀입국행위 국가존립 위해 행위 아냐"(10/1, 연합뉴스)
 -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탈북자 H(51)씨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음.
 - 법원은 단순히 돈을 벌고자 밀입북한 '탈북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브로커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도 무죄라고 판결했음.
 - 북한의 감시와 조사를 벗어나려고 탈북한 H씨는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미처 가져오지 못해 탈북 브로커 K(47) 씨에게 "700만원을 줄 테니 선친의 유골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H씨는 2011년 7월 16일 K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왔음.
 - 같은 해 7월 19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H씨는 이 일이 탄로 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 1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 K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 후 그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행위이며, K씨에게 밀입북과 재탈북 편의를 제공한 H씨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음.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 K씨의 밀입북 행위는 단순 브로커 활동에 불과할 뿐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H씨의 편의제공 행위도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심재권 "탈북자 수감자 증가추세··정착 부적응"(10/2,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자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탈북자 가운데 총 수감자는 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2011년 51명이던 탈북자 수감자는 2012년 68명, 2013년 8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기·횡령, 살인, 폭력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심 의원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캐나다 의회, 탈북자 문제 청문회 개최(10/3, 미국의 소리)
 -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발전위원회 산하 국제인권 소위원회가 2일 '탈북자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주제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음.
 - 청문회 참석자들은 탈북자들이 직면한 특이성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
 -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이성주 씨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당국의 추적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북한 요원들이 침투해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 이밖에도 연좌제 때문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른 나라 난민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독특한 상황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음.
 -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 '한보이스'의 랜들 바란칭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한-일본, 선양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 개최(9/29,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음.
 -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북한 내 일본인 조사 문제를 주의제로 회담을 시작했다.

- 이하라 국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 피해자를 비롯한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그 결과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특별조사위의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이에 대해 송 대사는 "오늘 여러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위해 조직된 특별조사위의 활동 결과 보고가 아니라 북일 합의 이후 현 상황에 대해 서로 밝히고 쌍방의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북한 송일호 "북한 내 일본인 조사 성실히 진행 중"(9/29, 연합뉴스)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29일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여러 분과에 망라된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송 대사는 "이번 회담은 일본 언론계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슨 납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자리가 아니었고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에 대한 상호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북한 측의 조사 결과 1차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조사 결과와 관련된 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통보)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특별조사위 성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상태를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은 자신들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말했음.
- 이하라 국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사 결과 첫 통보시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함.

■ 북한, 납치 조사상황 확인차 평양 방문 일본에 요청(9/30,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평양에 당국자를 파견하라고 일본에 제의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의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양에 와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북한으로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 그는 전날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 때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아베 총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착실하게 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북한 측의 설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송 대사는 선양에서 열린 NHK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사성원을 직접 만나 지금까지 조사성원이 조사를 진행한 경위에 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일본 측이 의견이 있으면 제기하고, (의견을) 제기하면 특별조사 성원이 그에 관해 의견 교환해서 다음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이런 제안에 관해 "재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조속히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파견하더라도 리스크(위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정부, 온실 물품 등 2억 원 상당 농자재 대북지원 승인(9/29, 연합뉴스)
 - 통일부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텃밭·온실 물품 및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함.
 - 재단 관계자 6명은 30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 기술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달 4일 돌아올 예정임.
 - 통일부에 따르면 온실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측 농업기술자들이 방북해 온실재배기술을 지도하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임.

- 정부 "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9/30,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덴NGO "북 정치범가족 등에 식량지원"(9/30, 자유아시아방송)
 - 덴마크의 국제구호단체 미션 이스트(Mission East)는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를 비롯해 최근 지원 대상에 탈북자나 수용소에 갇혔던 정치범의 가족 등 취약계층 2만 여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단체 대변인에 따르면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 등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소외계층에게도 식량지원을 진행 중임.
 - 지원하는 영양강화식품은 쌀과 옥수수 중심의 식사습관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분이 부족한 북한 어린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임.

- CFK, 북한에 수도 시설 설치(10/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비정부기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은 1일 실무진이 9월 말 방북해 사리원 등 황해도 두 지역에 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고 오는 9일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힘.
 - 이 기구는 올해 북한에서 가뭄이 심각해 주민들이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해 하반기

식수 시설 및 우물 파기 지원 활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방북에서 수도 시설 한 대를 설치하는 데는 2주간 2만 5천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방북한 실무진은 8명으로 구성되었음.
- 이번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물탱크와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한 태양열판을 설치해 중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는(Gravity-fed Water system) 방식으로 이뤄짐.

■ 러시아, 식량 5만 t 대북 지원…첫 선적분 남포항 도착(10/3,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올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만t의 첫 선적분이 북한에 도착했음.
- 통신은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성의 있는 지원은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표시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밝힘.

■ 유진벨재단, 결핵치료 지원차 이달 방북(10/3, 연합뉴스)

- 대북지원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의 존 로저스 미국지역담당 이사는 2일(현지시간) 정확한 방북 날짜와 관련해 북한 보건부와 협의하고 있어 곧 확정될 것이라 밝혔으며, 의사와 재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방문단이 약 3주간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힘.
- 로저스 이사는 "3주라는 시간에 12개로 늘어난 치료센터를 찾아다녀야 하는 다소 벅찬 일정이지만, 북한 보건부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40t 지원(10/3,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콩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주콩 40t를 지난달 선적했다고 밝힘.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북한 어린이 대다수가 여전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퍼스트 스텝스가 앞서 보낸 콩우유 저장탱크와 스테인리스 콩우유 용기 100개도 북한에 도착했다고 설명함.
- 콩우유 저장탱크는 북한 측의 요청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원산 어린이 식료공장에 보내졌음.

- 또한 콩우유 외에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 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힘.

8. 북한동향

- 現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논의는 "자기 식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권유린국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근본적 변화와 인권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비난(9.30,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은 미국의 농락물이 될 수 없다)
- '세계 노인의 날(10.1)' 즈음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 모든 연로자들이 연로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건강한 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고 주장(10.1, 평양방송/절세 위인의 사랑 속에 변함없이 실시되는 사회적 시책)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